

우리의 꿈은
당신의 건강입니다



환자와 일반인을 위한 안내서

위암에 대한 이해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

서울아산병원은 암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ontents



편 저 : 서울아산병원 위암센터

개정일 : 2019년 3월

발행처 :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

※ 본 책자의 저작권은 서울아산병원에 있습니다.

위란? ● ● ● 4

위암에 대한 이해 ● ● ● 5

1. 위암이란? ● 5
2. 위암은 왜 생길까요? ● 5
3. 위암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 5
4. 위암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6
5. 병기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 8
6.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9
7.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4
8.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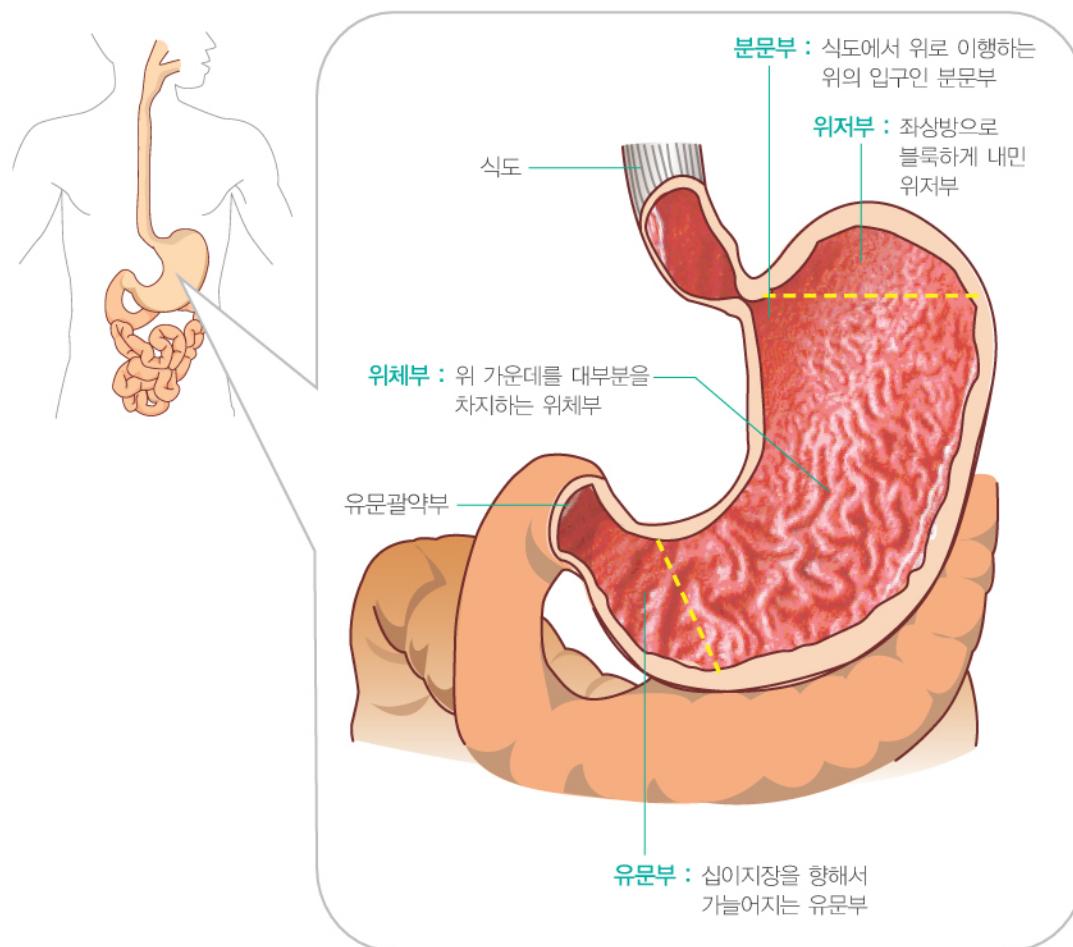


용어해설 ● ● ● 18

위란?

음식물을 삼키면, 흉곽 내에 있는 식도라는 가느다란 관을 통하여 복부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도와 위의 경계부위인 위의 입구를 분문이라고 하며, 십이지장과 연결되어 있는 위의 출구를 유문이라고 합니다. 위는 하부의 2/3정도의 지점에서 굽어져 있는데 그 곳을 위각이라고하고, 위의 벽은 점막층, 그 밑의 두꺼운 근육층, 그 바깥쪽의 얇은 장막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는 음식물의 일시적인 저장소이며, 소화흡수를 위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사전준비를 하는 곳입니다. 위 내에 음식물은 소화액과 함께 혼합되어,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음식물의 소화 및 영양분의 흡수는 주로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암에 대한 이해

1. 위암이란?

위암은 위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가장 흔한 형태가 위 선암이며, 위의 점막층의 세포에서 발생합니다. 위암은 점막층에서 발생하여 병이 경과함에 따라 점막하층, 근육층 및 장막층으로 침윤하게 되고, 위 주변의 림프절로도 퍼지며, 결국에는 다른 장기로 전이하여 전신에 퍼지게 됩니다.

위암이 림프절 전이에 상관없이 점막층과 점막하층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를 조기위암이라고 하며, 근육층이나 장막층에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를 진행성 위암이라고 합니다.



2. 위암은 왜 생길까요?

위암은 발병원인이나 기전에 대하여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으나 수십년간의 반복적인 위점막 손상, 발암물질의 반복적인 자극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흔히, 염분 함유량이 높은 고염식품이나 염장식품, 가공육류 또는 식품보존용 방부제와 불에 태운 음식과 훈제식품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흡연이나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라는 세균감염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위암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조기 위암환자의 경우 발병 당시에는 대부분 자각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으며 진행암의 경우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종양의 표면에 깊은 궤양이 형성되어 속쓰림, 상복부 통증,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 양성 위궤양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괴가 매우 커지거나 궤양이 깊어지면 혈변, 흑색변, 토혈, 심한 빈혈, 어지럼증 등이 있거나, 상복부에 종괴가 만져지기도 하며, 체중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4. 위암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① 위 내시경

내시경을 통하여 위의 내부를 보고 위암의 모양, 크기, 위치, 통과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안에 병변이 보이면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을 확진하여 수술을 결정합니다.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

③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CT)

복부 CT는 가슴 아래 부분부터 골반까지 5mm 두께의 단층으로 촬영하여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위암 주변 림프절 전이, 췌장 침범, 간 전이, 대동맥 림프절 전이, 복부, 난소전이 등 다른 장기의전이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암으로 두꺼워진 위벽



림프절에 전이된 모습

② 복부 CT를 이용한 위투시 검사

CT촬영을 이용한 위투시 검사는 수술 전 필요한 위 투시검사와 CT 촬영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위치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암으로 두꺼워진 위벽



림프절에 전이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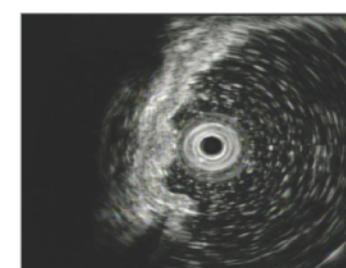
④ 내시경 초음파

일반적인 내시경의 검사로는 위 점막 표면만 관찰하게 되므로, 종양이 얼마나 깊이 자라 들어갔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내시경 초음파검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검사입니다.

내시경 끝에 초음파 진단장치를 붙여 위 안에서 직접 종양위에 대고 초음파 검사를 하므로 좀 더 정확히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주위의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커져있는 림프절을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기 위암



진행성 위암

5. 병기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위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육안으로 진단한 뒤 조직검사를 통하여 위암으로 확진되면, 위암의 진행 정도를 검사합니다. 위암의 진행정도를 병기라고 하며, 위암의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검사를 통해서 위벽에 암세포의 침범 정도와 위주변의 림프절 전이 개수,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림프절의 전이나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수술 전의 검사만으로는 불완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병기는 위절제 수술 후 조직검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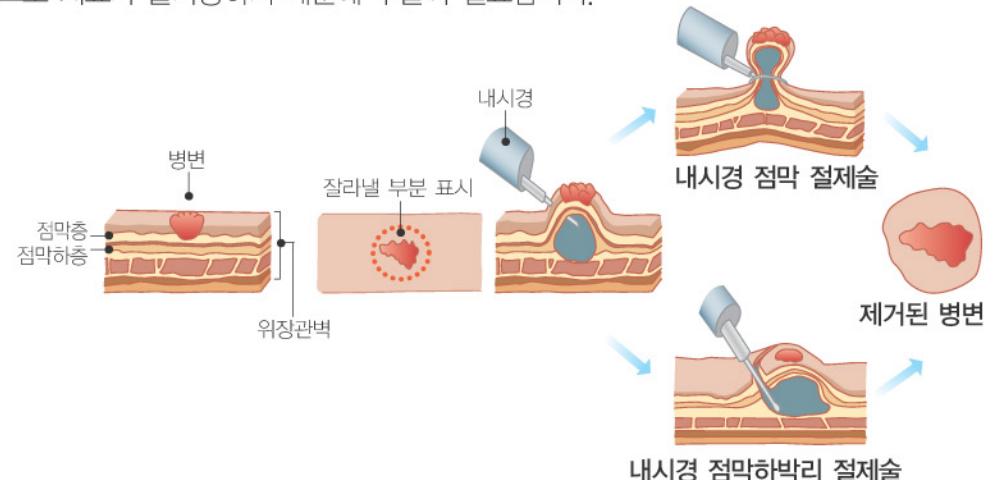
위암의 병기는 1기 전반, 1기 후반, 2기 전반, 2기 후반, 3기 전반, 3기 중반, 3기 후반, 4기의 8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숫자가 높아질 수록 진행된 위암이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6.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①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시술)

내시경이란 식도, 위, 대장 등의 장관의 안쪽을 보는 도구로서 병을 발견하거나 치료에 이용됩니다. 위내시경은 위암 등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 치료법은 위암이 작고 얕은 조기위암 중에서 림프절의 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병의 깊이가 얕고 크기가 작아도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만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② 수술

위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로서 암세포를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할 경우에는 암세포의 위치에 따라 위의 2/3이상의 범위를 절제하거나 전 절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암의 일반적인 수술치료는 **개복수술**과 **복강경수술**, **로봇보조수술** 그 외 **비치유절제술**이 있습니다.

▶ 개복수술

위암으로 확진되고 검사 상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위암의 진행정도에 따라 축소수술이나 확대수술을 하게 됩니다. 축소수술이란 조기위암에 있어서 절제범위를 축소하던지 림프절의 절제를 제한하는 수술을 시행하거나 대망이라는 지방조직을 보존하여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확대수술이란 진행성 위암에 있어서 위뿐만 아니라 비장, 췌장 및 대장을 함께 절제하거나, 나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림프절까지도 절제하는 수술입니다.

6.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복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내시경으로 뱃속을 관찰하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입니다. 개복수술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술 후 미용적인 면이나 수술 후 통증의 감소, 조기회복 등으로 환자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어 최근에 조기 위암환자에게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로봇보조수술

로봇보조수술은 복강경 수술과 유사하나 사람의 손에서 발생하는 떨림이 없고, 로봇팔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수술 시야를 3차원으로 확보할 수 있어 좁은 공간을 수술 할 때 유리합니다. 하지만, 복강경 수술에 비해 시행기간이 짧아, 안전성과 유용성에 대한 임상적 결론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며, 수술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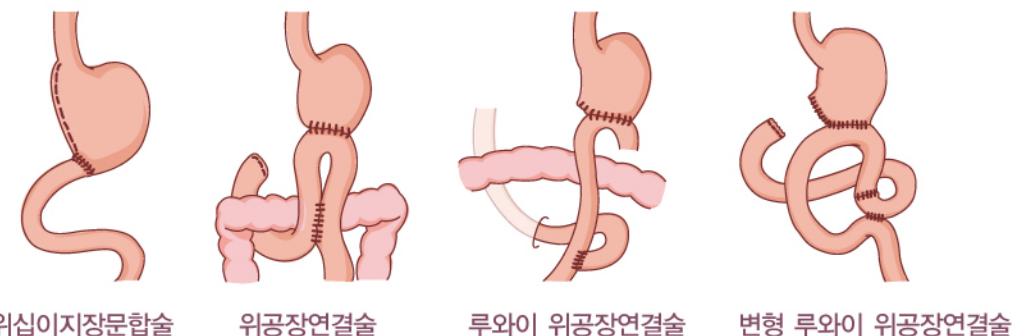
▶ 비치유절제

위암을 절제하지만 암이 확실하게 남아 있는 경우를 비치유절제라고 합니다. 비치유절제는 위암의 완치보다는 암에 의한 증상을 감소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예를 들면 위암세포가 복막에 퍼져서 장이 막혔을 경우 음식이 통과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거나 좁아진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어 치료가 어렵거나 위에 생긴 암으로부터 출혈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지혈을 위해서 위암의 원발소를 절제하는 경우도 비치유절제라고 합니다.

위 수술방법

위 아전절제술

위의 부분절제로서 위절제 후 위와 십이지장을 연결해주는 방법과 위와 소장의 일부분인 공장을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암세포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위십이지장문합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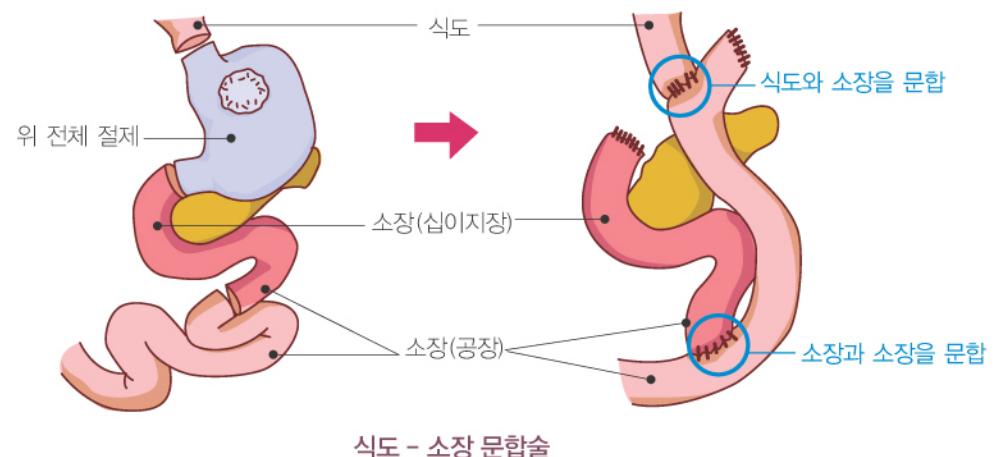
위공장연결술

루와이 위공장연결술

변형 루와이 위공장연결술

위 전절제술

위 전체를 절제 후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암세포가 위 전체에 있거나 상부에 있을 때 시행합니다.



6.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③ 항암화학요법

▶ 항암화학요법 적응증

항암제는 암세포를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위암에 항암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로 위암을 제거한 후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둘째,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나 또는 수술 후 재발하여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항암제에 의해서 암의 크기를 작게 만든 후에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이처럼 항암화학요법은 수술 후 재발을 예방하고 생존율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본원에서는 병기가 2기 이상인 경우부터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구용 항암제를 복용하거나 주사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항암제는 정상적으로 골수 기능이 회복되는 시기인 3~4주마다 한번씩 투여받게 되며 항암제의 종류에 따라 치료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항암제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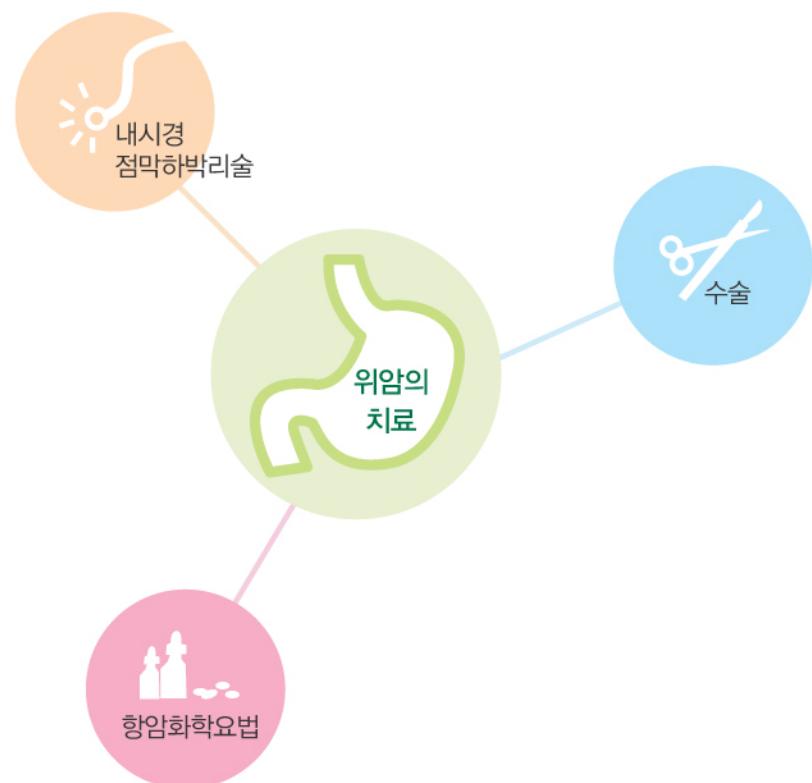
주로 사용하는 항암제는 에스원, 카페시타빈, 플루오로우라실, 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이리노테칸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니볼루맙 또는 펨브롤리쭈맙과 같은 면역치료제도 사용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환자의 병기, 전신상태, 골수, 간, 신장기능 등에 따라 단독, 또는 병용요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 항암제의 부작용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에도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빈혈, 백혈구 감소, 구토, 구역질, 식욕부진, 설사, 탈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정도는 항암제의 종류나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④ 방사선요법

방사선요법은 높은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하여 암세포를 파괴하여 암의 크기를 줄이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치료가 위암의 재발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없어, 일반적인 치료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위암 환자들에게 방사선요법은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수술은 했지만, 암을 완전히 절제하지 못했거나, 재발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통증 등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7.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위 수술 후 식사 요령

입에서 위의 기능을 대신합니다

위의 기능은 주로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서 장으로 내려 보내는 일입니다. 위 수술을 받게 되면 위의 기능이 감소하게 되므로, 입안에서 음식물을 잘게 씹고 타액에 포함되어 있는 효소로 소화가 잘 되도록 충분히 섞어서 삼키도록 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위가 작거나 없어졌기 때문에 처음 들어간 음식물이 흘러내려 갈 때까지 천천히 먹도록 하며, 배가 불러지기 바로 전에 그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적당한 식사 속도는 수술 방법이나 식사내용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에게 적절한 속도를 찾아가면서 먹도록 합니다.

적은 양으로 먹지만 자주 먹도록 합니다

같은 수술을 하였더라도 개인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적당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으로 시작하여 서서히 양을 늘려 자신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하여 먹도록 합니다. 만약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적다면 소량씩 자주 먹어서 전체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상체를 세우도록 합니다

식사 직후에 옆으로 눕는 경우는 음식물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앉아있거나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장운동이 빠르거나 위를 전부 절제한 경우에는 음식물이 급하게 소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덤핑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식후에 잠시 기대어 쉬는 편이 좋습니다.

수분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위 수술 후에 물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식사량이 감소한다고 하여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적당량의 수분은 인체에 꼭 필요하므로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식사 중이나 직후의 수분섭취는 음식물을 빠르게 흘려보내 덤핑증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량으로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소량으로도 영양이 많은 음식을 먹도록 합니다. 특히, 체력 회복을 위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기, 생선 외에 계란, 우유, 치즈, 두부 등도 좋습니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은 기름을 사용한 음식, 고기나 생선이 대표적이며, 쌀, 빵, 감자, 고구마, 토란 등도 영양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기름기는 수술 후 잠시 동안은 설사나 복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먹기 힘들지만 소량씩 서서히 습관을 들이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유는 섭취시 설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먹어도 좋으며, 신선한 야채나 과일도 골고루 먹도록 합니다. 단, 당도가 너무 높은 과일은 한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합니다

자기 직전에 과일을 먹으면 다음 날 아침까지 위에 머물러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거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기나 지방질을 먹으면 담즙 등의 소화액이 대량으로 나와 식도 쪽으로 역류되어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일반적으로 자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종류를 특별히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위 수술을 받은 뒤라고 하여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범위에서 식사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카레라이스나 커피도 특별히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대단히 매운 카레를 먹거나 빈속에 진한 커피를 몇 컵씩이라도 마신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신선한 생선회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입에서 많이 씹어서 큰 덩어리째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장의 유착에 의한 장폐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큰 덩어리를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질긴 야채류는 그다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게 잘라서 먹는 것이 좋으며, 특히 감은 많이 먹으면 위에서 둘 모양으로 굳어져 큰 덩어리가 되어장을 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7. 치료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② 위 수술 후 발생하는 덤픽증상

덤픽증상이란 위 절제 수술 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급격하게 소장으로 흘러들어가 장운동이 과다하게 활발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사 후 배가 부글거리면서 복통이 있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특히 당분의 경우에는 소장에서 흡수가 빨라지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몸에서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호르몬이 순간적으로 다량 분비되어 저혈당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불안감이 들고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땀이 많이 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과자나 사탕, 또는 단음료수 등을 먹거나 마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생기는 경우 식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사탕이나 과자를 먹어 저혈당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퇴원 후 병원진료가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복통이 극심한 경우, 구토가 반복되면서 방귀가 1~2일 이상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병원내원이 필요합니다.

④ 수술 후 검사

수술 후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6개월 이후에는 CT촬영, 1년마다 내시경검사를 하여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항암치료를 병행하는 분들은 치료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8.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정기검진

위암으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진단입니다. 증상이 없는 상태라도 남녀 모두 40세부터 시작하여 최소한 1년에 한번은 내시경 또는 위투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위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이보다 젊은 나이에 시작하여 자주 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위암예방을 위한 일상생활

위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가장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식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식품에는 약간이지만 위에 암을 만드는 물질, 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이 많은 음식을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소금에 절인식품이나 염장식품 등의 고염식품, 생선이나 고기가 타서 누른 것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뜨거운 것을 급하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담배도 위암의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과 금연하는 것 만으로도 위암발생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한 위암의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40세가 되면 조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해설

MEMO

림프절

인체의 면역 기관 중 하나로, 림프계를 구성하는 기관. 평소 림프관 중간 중간에 위치하여 신체 내의 여러 이물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지만 암이 발병할 경우 암세포의 전이를 유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함

점막층

위의 가장 안쪽 벽, 소화관을 덮고 있는 부드럽고 끈끈한 막으로 뭉쳐진 점막겹으로
장의 가장 안쪽에 있음

점막하층

점막층 바로 아래부분

장막층

흰 빛의 얇은 막으로 소화관을 싸고 있는 가장 바깥 부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위장내벽에 감염되며 헬리콥터 날개같이 돌면서 전진하는 특성이 있는 세균.
위염, 위궤양, 위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함



서울아산병원 암교육정보센터

0550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88, Olympic-ro 43-gil, Songpa-gu, Seoul 05505, Korea

Tel:1688-7575 <http://cancer.amc.seoul.kr>